

19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 먼 길에 올 제
호올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길이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비판적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명령형의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은 현재의 삶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가 상상한 공간을, ㉡은 현실의 공간을 나타낸다.
- ③ ㉠은 화자가 체험한 것을, ㉡은 화자가 지향하는 것을 나타낸다.
- ④ ㉠과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을 나타낸다.
- ⑤ ㉠과 ㉡ 모두 화자가 동반자를 만나 함께 정착하는 삶을 나타낸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그늘을 만들어 가로수로 널리 쓰이는 ‘플라타너스’의 속성에 착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꿈을 지닌 플라타너스는 화자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고독한 화자에게 자신이 지닌 사랑과 배려의 덕성을 베풀어주고 있다. 그런 플라타너스를 통해 화자는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소망도 품게 된다.

- ① 1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꿈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군.
- ② 2연에서 화자는 타인을 배려하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나타내고 있군.
- ③ 3연에서 화자는 고독할 때 자신에게 위안이 되었던 ‘플라타너스’를 떠올리고 있군.
- ④ 4연에서 화자는 자신과 ‘플라타너스’를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군.
- ⑤ 5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이리로 옮겨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아내와 나는 의논한 결과, 어찌면 주인공에서 타협을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아내가 한 달 방세를 가지고 가서 다시 ㉠ 사정을 해보기로 했다. 그래, 가지고 갈 방세의 금액이 문제였는데, 이만 원, 삼만 원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사만 원으로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오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 방세 오만 원씩을 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들리는 말에 다다미 한 장에 만 원씩이란 말도 있고, 정하고 있던 방세를 올릴 참으로 방을 비워 달라는 수가 비밀비재란 말이 있는데다, 더욱이 우리는 변호사 영감의 딸대로 법적으로 해결을 지어서 노상에나 여관으로 쫓겨 나가는 날이면 큰일이라, 이런 방세나마 내고 타협을 얻은 후, 마음 놓고 나가 열심히 장사를 해 살아가갈 변통을 하는 게 나를 성심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벌써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은 옷가지를 갖고 국제 시장으로 나가고, 큰 애 들은 서면에 가서 미군 부대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오만 원도 아내의 장사 돈에서 떼낸 돈이었다.

안방에 들어갔다 잠만에 아내가 돌아왔다. 손에 돈이 들려 있지 않다. 그러면 댜나 보다 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방을 비워 달란다는 것이다. 영감과 큰아들은 다다미 여덟 장 방에서 자고, 큰 은돌방에는 작은아들과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그러고는 좁아서 못 견디겠다는 말은 못 하겠던지, 장발한 딸들의 말이 할머니 코 고는 소리에 도시 잠을 잘 수 없으니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쓰게 내달라더라는 것이다. 여기서 아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넉넉히 내어 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 방 하나만 구해 주면 금 손목시계를 프레젠탈하겠다는 것도 못하고 있단다는 것이다. 나는 간이 서늘해 음을 느꼈다. 금 손목시계라니 문제가 좀 큰 것이다. 그래, 가지고 갔던 돈은 어쨌느냐니까, 좌우간 딸들 책이라도 한 권 사보라고 놓고 오긴 했다고 한다. 이 돈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이 돈은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내가 피난지에서서 방을 구하지 못해 간청하며 버티자 집주인은 전기까지 끊으며 압박을 한다. 나의 가족은 낮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저녁에 모여 집으로 돌아간다.

부성교에 이르러 우리는 오른편으로 꺾인다. 개천 독길은 어둡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한데 어둡다.

남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 ㉡ 노래 불러요, 한다. 내가, 노래는 무슨 노래, 하려는데 엄마 곁에 붙어서 가던 선아가, 노래라는 말에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부르기 시작한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나는 이 선아가 변호사 맥에서는 꾸지람이 무서워 어린 동생에게 노래는커녕 소리 한번 못 내게 주의시키던 일을 생각하고, 노래를 그만두라는 말을 못한 다. 남아, 동아도 따라 부른다.

이 노래가 끝나기가 바쁘게 남아가, 찌리링 찌리링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찌리리리링, 하며 자전거를 탄 시늉을 하고 어둠 속을 달린다.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졸던 애가 오늘은 웬일일까. 오늘 장사가 수지가 맞았다는 것인가. 저기 가는 저 영감 꼬부랑 영감,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번에

는 자전거가 이리로 달려와 아빠 새를 돌아 나간다. 아빠 되는 이 영감은 자전거에 치지 않기 위해 비켜나야만 했다.

등에서 진아가 잠을 잤다. 깨어나서는 누나가 다시 부르기 시작한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를 같이 불러 본다. 선아는 울동까지 섞어 가며 한다. 흡사 어둠 속을 날아가는 나비와도 같이.

누나의 노래가 끝나자, 그제는 온전히 정신이 든 듯 진아가, 산토끼 토끼야를 꺼낸다. 이놈은 또 토끼 뛰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는데, 내 등에서는 맛이 안 나는지 어깨로 기어 올라가 무릎을 타고서 야단이다. 강충강충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산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밤토실 주워서 올 테야. 진아는 노래가 끝난 뒤에도 그냥 토끼 뛰는 시늉을 한다.

나는 여섯 살잡이 진아의 엉덩이 밑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생각한다. 토끼라고 하면 이 아빠도 엄마도 토끼띠다. 그러나 이 아빠 토끼는 강충강충 산고개를 넘어가 토실밤을 주워 오기는커녕 이렇게 어두운 개천 독에서 요 맛 무게 요 맛 움직임 밑에서도 비틀거리며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 곡예사라는 말을 떠올렸다. 음아, 지금 나는 진아를 어깨에 올려놓고 곡예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진아도 내 어깨 위에서 곡예를 하고 있고, 선아는 나비의 곡예를 했다. 남아는 자전거 곡예를 했다. 이 남아가 이제 몇 센트의 군표*를 위해 그 꼬마와 같은 지랄을 해야 하는 것도 일종의 슬픈 곡예인 것이다. 그리고 동아의 폴리스 썰투미도 그런 곡예요, 이들이 가슴이나 잔등에서 또는 허리춤에서 담배 보루며 꺾꽂이를 재빨리 꺼내고 넣는 것도 훌륭한 곡예의 하나인 것이다.

- 황순원, 「곡예사」 -

* 군표: 전지(戰地)에서 군대의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긴급 통화.

4 [A]의 주된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 ③ 환상적인 배경을 통해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다른 인물에게서 들은 것을 독자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5. ㉠과 ㉡을 연관 지어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듣고 '나'는 ㉡과 같은 자유로운 예술가의 삶을 동경한다.
- ② ㉠을 듣고 '나'는 자신의 가족을 ㉡에 빗대어 서글픈 감정을 드러낸다.
- ③ ㉠은 '나'에게 동심을 불러일으켜 ㉡으로 활동했던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 ④ ㉠은 ㉡처럼 살아가며 순수성을 잃어버린 '나'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⑤ ㉠에 담긴 '나'에 대한 아이들의 불신은 ㉡과 같은 삶을 사는 '나'에게 가장의 역할을 떠올리게 한다.

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곡예사」는 피난지에서 '방'을 확보해야 하는 주인공과,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일을 추구하는 자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삶의 절박함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생존에서 중요한 공간인 '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인간성을 비판하고 연대감이 상실되어 가는 사회 현실을 보여 준다.

- ① 주인공 부인이 '이 방'과 관련하여 '금 손목시계'를 언급하는 장면은 피폐해진 인간성을 드러내는군.
- ② '나'가 '노상'으로 쫓겨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나'가 무리하게 방세를 '오만 원'으로 결정한 것은 집주인과 대립 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 주는군.
- ④ '나'의 '아내'가 '이 방'의 일부를 주인공 '할머니'에게 잘 자리로 내주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은 삶의 절박함을 보여 주는군.
- ⑤ '다다미 여덟 장 방'과 '큰 온돌방'에 살면서도 '이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행태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7. ㉠을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애걸복걸(哀乞伏乞)
-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 ③ 사면초가(四面楚歌)
- ④ 견강부회(牽強附會)
- ⑤ 갑론을박(甲論乙駁)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빈천(貧賤)을 팔려고 권문(權門)*에 들어가니
덤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
강산(江山)과 풍월(風月)을 달라하니 그건 그리 못하리
- 조찬한 -

(나)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 이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섶으로 삼아
㉠서 홉 밥 닷 홉 죽(粥)에 연기(煙氣)도 자욱하다
설 태운 승냥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내 삶이 이리한들 ㉡장부(丈夫) 뜻을 바꿀런가
안빈(安貧) 일념(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뜻한 바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瓶)이라고 담겼으랴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 간(天地間)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로 피로워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의(義)를 위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루와 주머니에 줌증이 모아 놓고
전쟁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있어
주검 밟고 피를 건너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내 몸이 여유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라
수염이 긴 노비는 노주분(奴主分)*을 잊었거든
㉣봄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을런고
손수 농사짓기가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권문: '권문세가'의 준말. 권세가 있는 집안.
* 누항: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 누추한 곳을 이룸.
* 풍조우석: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
* 감사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구분.
* 경당문노: 밭 갈기는 마땅히 노비에게 물어야 함.

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 ③ (나)에서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감정 이입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심화한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 ② ㉡: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자가 지키려는 뜻
- ③ ㉢: 화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던 전쟁
- ④ ㉣: 한해의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할 때
- ⑤ ㉤: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넉넉한 태도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에 여러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나라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선비들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조찬한의 시조와 박인로의 「누항사」에는 선비들이 현실적 고민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의 ‘빈천’은 선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가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나)의 ‘누항’은 가난한 현실로 인해 선비로서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 있는 공간이군.
- ④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는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⑤ (가)의 화자가 ‘권문’을 찾은 모습과 (나)의 ‘안빈 일념’을 적게 지닌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채봉과 장필성은 혼약을 하지만,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돈을 주는 것과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들이는 것을 대가로 벼슬을 약속 받는다.

김 진사 내외가 상경하여 이왕 객줏집으로 임시 거처를 정하고, 이튿날 허 판서를 가서 보니, 허 판서가 김 진사를 보고 반겨,

“아! 김 현감 오시나. 그래 올라오는데 노둑이나 아니 냐? 자, 우선 급한데 과천 현감을 구경하려나.”

하더니, 문갑에서 현감 칙지*를 내어 주는지라. 김 진사가 칙지를 보고 가슴이 주저앉으며 혼 빠진 사람처럼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반지를 못한다. 허 판서가 거동을 보고 껄껄 웃으며,

“왜 그래? 너무 반가워서 그러하지.”

김 진사가 일어나 절을 하여 칙지를 받아 앞에 놓고, “대감 혜택으로 친은을 입었습니다마는, 운수가 불길하여 올라오다가 죽을 풍파를 겪고 올라왔으나, 대감 비을 낮이 없습니다.” / 허 판서가 깜짝 놀라며,

“응, 그게 무슨 소리나? 풍파를 겪다니?”

김 진사가 전후의 말을 다하니, 허 판서가 별안간 눈이 실췌하여지며, 조금도 가없는 생각이 없이,

“허! 이런 맹랑한 놈 보야! 제가 어찌하였는지 과천 현감은 할 터이니까, 내려갈 때에는 허락을 다하고 지금은 판소리를 해.”

하며, 부르르 놀라는 채하고 김 진사의 얼굴을 훑어보며, “대단히 놀라운 말일세. 채물은 도적이 가져갔거니와, 딸이야 못 찾아 가지고 온단 말인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대감 위력이나 빌어 가지고 찾고자 하여 올라왔습니다.”

허 판서가 왈각 성을 내어 큰 소리로 꾸짖어 가로되, “이놈, 부모가 되어서 난(亂)중에 자식을 잃고 찾을 생각을 아니하고, 뉘 위력을 빌어서 찾으려고 내버리고 왔어. 맹랑한 놈.” / 하더니, 하인을 불러서 구류를 시키라 하며,

“이놈, 네 딸을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오천 냥을 마저 바치든지 해야 무사하리라. 이놈아, 이따위 소리를 뉘 앞에서 하느냐. 시골 내려간 동안에 주선을 다 해서 주마고 하였더니, 현감은 할 터이니까, 지금 와서 그까짓 소리를 한단 말이나.” / 하고, 다시 말할 새 없이 가두더라.

(중략)

이때 채봉은 취향과 약속한 후 만리교에서 이 부인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하여 취향과 취향 어미를 데리고 평양으로 도로 내려와 취향의 집에서 있으며, 부친의 기별을 기다리고, 차차 길을 얻어 장필성에게 통하려고 우선 서화(書畵)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 채봉이는 만리교에서 도적이 들기 전 두어 식경이나 앞서 도망한 고로, 김 진사가 그 지경이 된 줄은 모르고 있더라. 이때 부인이 주야 열흘 만에 평양에 당도하니 어디로 가리오. 속으로 생각하되,

‘㉠ 애기가 이리로 오면 필연 취향의 집으로 왔을 터이니, 취향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옳다.’

하고 대동문을 들어서며 좌우를 돌아보고, 탄식하는 말이, “㉡ 산천과 물색은 의구하다마는 나는 불과 한 달 동안에 행색이 이렇게 초췌하여졌단 말이나?”

이렇듯 한숨지며 고을에 들어서서 취향의 집으로 들어가니, 이때 채봉은 취향을 데리고 선후 망침을 의논하며 앉았는데, 이 부인이 안으로 들어오며 취향부터 부른다.

“취향이, 취향이!”
 채봉과 취향이 부인의 음성을 어찌 모르리오. 한결음에 우르르 뛰어나오는데, 이 부인이 미처 채봉은 보지 못하고 앞선 취향부터 보고,
 “취향아, 우리 택 아끼씨 여기 왔니?”
 채봉이 급히 이 부인의 손을 잡고,
 “어머니, 나 여기 있소.” / 이 부인이 얼싸안고,
 “㉠ 이 일을 어찌하면 중단 말인가? 우리 집이 오늘날같이 불시에 망할 줄을 꿈에나 생각하였을까?”
 채봉이 이 말을 듣고 소스라쳐 놀라 울며,
 “망하다니! 불초녀(不肖女)로 무슨 풍파가 났소?”
 이 부인이 정신을 진정하고 방으로 들어가 앉으며,
 “어떻게 되어서 네가 이리로 왔니?”
 채봉이 부인의 행색을 보고, 이 말에는 대답을 아니하고 도리어 묻기부터 한다.
 “글쎄 어머니, 나 여기에 온 것을 장차 이야기할 것이니,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하시오. 아버지는 어디 계시며, 어머니는 무슨 일로 이렇듯이 혼자 오시오?”
 하는데, 부인은 한참 동안 가슴이 답답하여 앉았다가, 만리교에서 도적을 만난 일과, 서울에 갔다가 허 판서가 영감을 가두고 옥박지르던 말을 다 하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돈을 오천 냥을 하여 놓든지, 너를 데려오든지 하라 하니, 너는 아버지를 살리려거든 나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
 채봉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지난날 만리교 주막에서 취향과 약속하고 밤중에 도망하여 온 말을 대강하여 말하고,
 “어머니, 나는 죽어도 서울로 올라가기는 싫소. 이 자식은 죽은 길로 아십시오.”
 “네가 아니 가면 아버지는 아주 돌아가시란 말이냐. 너를 찾아 놓든지, 돈을 해서 놓아라 하니, 너라도 가야지.”
 채봉이 묵묵히 앉아서 홀로 사세를 생각하니,
 ‘㉡ 가련한 부모는 이미 범의 아구리에 들었으며, 가산은 탕진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 몸은 죽어도 먹은 마음 변할 생각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리오. 내가 올라가면 장필성의 죄인이 될 것이요, 돈도 못 하고 나도 아니 올라가면 부모는 환란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이 몸이 죽으면 모를까. 죽으면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려니와, 늙고 병든 부모는 속절없이 죽는 사람이라. ㉢ 죽기도 살기도 어려우니 슬프다. 천지가 광활하나 가련한 박명 여자의 한 몸을 용납할 곳이 없는가. 세상에 누가 만일 돈을 주어 내 부모를 구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데려다가 중노릇을 시키거든 중노릇을 하고, 기생 노릇을 시키거든 기생 노릇이라도 하리라.’
 이와 같이 결심하니, 세상에 한없는 것은 눈물이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

* 칙지: 왕이 내린 명령.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부인은 재물을 잃은 것이 채봉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 ② 채봉은 도망 후 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취향의 집에 숨었다.
- ③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채봉을 찾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 ④ 채봉은 이 부인과 재회한 후, 도망 온 대강의 사연을 이 부인에게 말했다.
- ⑤ 김 진사는 허 판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칙지를 받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내적 독백을 통해 ‘이 부인’이 ‘취향’의 집으로 가려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자연과 대비되는 ‘이 부인’의 상황을 제시하여 ‘이 부인’의 암담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의문의 진술을 통해 ‘이 부인’의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채봉의 ‘부모’가 직면한 상황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채봉’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채봉감별곡」은 주인공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행위가 현실적인 욕망에서 기인하며, 주인공이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 전기적(傳奇的)인 요소가 거의 없고 우연적인 요소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인물을 제시한 점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 ① 채봉은 혼약을 지키려고 평양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채봉은 천한 신분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허 판서의 매관매직과 횡포로 채봉의 집안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 있군.
- ④ 김 진사는 딸을 첩으로 보내면서까지 출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채봉이 만리교에서 도적이 들 것을 예측하고 피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구성에 비현실적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빠른정답.

1	3	5	5	2
3	1	5	5	5
4	5	5		

[1~3] (현대시) 김현승, 「플라타너스」

이 작품은 빨리 자라 한때 가로수로 널리 쓰였던 ‘플라타너스’의 속성에 착안하여 창작되었다. 화자는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함께하는 자세를 통해 이겨내고자 한다. 이때 플라타너스는 함께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화자는 이러한 플라타너스와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1. [출제의도] 시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이 시는 플라타너스라는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이 시의 어조는 비판적 어조가 아니다. ③ 이 시에서 반복되는 명령형의 문장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시에서 직유법은 활용되지 않았다. ⑤ 이 시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출제의도] 시어나 시구의 의미, 기능을 파악한다.

이 시에서 ‘먼 길’은 화자가 걸어가는 고단한 인생의 길이며 자신이 걸었던 길이다. 따라서 화자가 체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열린 길’은 미래의 어느 날 걸어가게 될 곳으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은 화자의 현재의 삶이며, ㉡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다. ② ㉠은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이며, ㉡은 화자가 꿈꾸는 관념 속의 공간이다. ④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내적 희망을 북돋우는 개념이다. ⑤ ㉠은 ‘호올로 되어 외로’웠던 고단한 인생의 길이다.

3. [출제의도] 자료의 맥락을 고려하여 시를 감상한다.

이 시에서 5연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이 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오답풀이] ① 1연에서는 ‘플라타너스’에게 화자가 ‘꿈’이 있는지 묻고 있다. ② 2연에서 화자는 ‘그늘’을 드리우는 ‘플라타너스’의 모습을 타인을 배려하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4연에서 ‘플라타너스’에게 ‘너와 함께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하는 데서 화자와 ‘플라타너스’가 모두 유한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 (현대소설) 황순원, 「곡예사」

이 작품은 전쟁 중에 겪은 작가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당시의 비참했던 피난민들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서술자인 ‘나’는 인간다운 삶을 허물어버리는 전쟁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인간성을 비판한다. 또한

자신과 가족들을 ‘곡예사’에 비유하여 절망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다.

4.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인물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서술자인 ‘나’가 ‘아내’에게 들은 내용을 ‘나’의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의 외양 묘사가 없다. ④ ‘나는 간이 서늘해 옴을 느꼈다.’에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지만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5.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이해한다.

‘나’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곡예사’를 떠올린다. ‘나’는 자신이 비틀거리며 재주를 부리는 곡예사이고, 남아와 동아가 장사를 하며 슬픈 곡예를 한다고 했다.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을 ‘곡예사’에 비유하여 전쟁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서글픈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작품에서의 ‘곡예사’는 삶의 질곡과 고단함을 지고 가는 한 가정의 인생을 표현한 것이다. 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나’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지만 그 노래 속에 ‘나’에 대한 아이들의 불신은 나타나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나’가 무리하게 방세를 ‘오만 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집주인과 대립 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이다.

[오답풀이] ① 주인택 부인이 ‘이 방’과 관련하여 ‘금 손목시계’를 언급하는 장면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피폐해진 인간성을 드러낸다. ② ‘나’가 ‘노상’으로 쫓겨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서 중요한 공간인 ‘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④ ‘나’의 ‘아내’가 주인택 ‘할머니’에게 잠자리를 내주면서까지 집주인에게 사정하는 것은 삶의 절박함을 보여 준다. ⑤ 주인택 식구들이 넓은 방에서 생활하면서도 ‘이 방’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행태는 자신들만의 안일을 추구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7.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를 이해한다.

‘나’의 아내가 한 달 방세를 가지고 가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것은 ‘소원 따위를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빌.’이라는 의미의 ‘애걸복걸(哀乞伏乞)’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③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④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⑤ 갑론을박(甲論乙駁):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8~ 10] (고전시가) 조찬한, <빈천(貧賤)을 팔려고~>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 (가)에서는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를 통해 이해타산에 밝은 세태를, (나)에서는 ‘장부 뜻을 바꿀런가’, ‘일단심을 잊을런가’ 등에서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찾아볼 수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감정 이입이 쓰이지 않았다.

9.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 ㉠은 ‘화자 자신의 분수’를 뜻하는 표현으로, ‘내 분인 줄 알리로다’라는 대목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② 화자는 ‘설 태운 승냥’으로 허기를 채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부 뜻’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0.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 (가)의 화자는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나)의 화자는 ‘안빈 일념’을 품고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을 각각 보인다. 특히 (나)에서 화자가 과거에 현실과 타협하려고 했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 ④ ‘일단심’은 일편단심을 의미하므로,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이를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서 선비로서의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11~ 13] (고전소설)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1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 채봉은 평양으로 돌아온 이 부인과 만나, ‘지난날 만리교 주막에서 취향과 약속하고 밤중에 도망하여 온 말을 대강하여 말’을 하였다는 것을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채봉은 평양으로 도망친 후, 취향의 집에서 부친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12. [출제의도] 구절의 표현 및 의미 파악하기

- ㉠은 ‘채봉’의 내적 독백으로, ‘채봉’의 행위에 대해 서술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편집자적 논평은 아니다.
- ②㉡은 오랜 시간 변함이 없는 자연의 모습과 한 달 동안에 행색이 초췌해진 ‘이 부인’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이 부인’의 암담한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④㉢은 도적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김 진사가 허 판서에게 붙잡혀 있는 등 채봉의 ‘부모’가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범의 아구리에 들었으며’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 채봉은 이 부인이 잠든 틈을 타 도망을 친 후, 평양에서 다시 만난 이 부인으로부터 부모가 만리교에서 도적을 만난 일과 김 진사가 갇힌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채봉이 도적을 만날 것을 예측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채봉은 중노릇이나 기생 노릇도 감수하고서라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므로 능동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김 진사는 딸을 허 판서의 첩으로 보내면서까지 출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